메달로 나툰 20세기 고승 수행한담

20세기의 정신적 師表"

◇영호스님

◇만해스님

◇한암스님

◇동산스님

◇청담스님

◇경봉스님

◇고암스님

◇묵달스님

◇탄허스님

◇성철스님

◇월산스님

1925년 판사로서 최초의 사형선고를 내린 그 순간부터 자신과 사회구조에 대한 회의에 빠져 엿장사 등으로 3년간 방랑생활을 하다 금강산 보운암에서 석두(石頭)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절구통수좌'라는 별명을 들으리 만큼 불굴의 의지로 정진수행한 스님은 1930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1년6개월간 법기암 뒤 토굴에서 용맹전진 후 개오했다.

〈1888~1966,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가야총림 방장〉

금 오 스 님

스님의 선지(禪旨)는 타고난 것이었다. 제자나 후학들이 화두를 드는데 소홀할 것 같으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수좌는 화두 하나만 챙기면 된다며 다른 경을 보거나 율을 거론한다거나, 주력을 하는 따위의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일간 정진에 들어가면 회향을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중은 사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말로 되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진을 마치는 것이 최상의 자비라는 게 스님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일신의 안위를 초개와 같이 생각했다. 몰연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수월(水月) 선사를 친견하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만주로 건너간 일화는 그의 구법을 향한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1896~1968, 조계종 부종정·선학원 조실〉

청 담 스 님

봉정암에서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해제 시기인데도 마치 시계추와 같은 규칙적인 생활에 시기심을 낸 몇몇 도반들이 동안거 결제를 위해 떠나가야 할 날을 알려주지 않은 채 선정삼매에 빠져 있는 청담을 1주일분 정도의 식량과 함께 봉정암에 남겨두고 몰래 떠났다. 그 사이에 대설이 내렸고 길이 두절됐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지경을 맞았다. 1주일이 지나면서 스님은 굶주리면서 정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1주일이 더 지나가고 보름째 되던 날, 희유한 일이 일어났으니 당시 홍천군의 일본인 군수와 경찰서장의 꿈에 설악산신이 나타나 "지금 봉정암에 도인(道人)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속히 가서 공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이 같음을 기이하게 여겨 곧 인원을 동원, 눈을 헤치며 며칠만에 봉정암까지 올라갔다. 방문을 열어 젖히자 벌써 피골이 상접해진 한 도인이 좌선삼매에 들어 있었으니, 도(道)에는 갓길이 있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일화다.

스님은 33세 되던해 묘향산 설령대에서 3일 밤낮을 용맹정진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1902~1971,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조계종 통합종단 제2대 종정〉

경 봉 스 님

스님은 법문이나 게송을 내림에 있어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의 선사들이 흔히 중국의 조사어록이나 염송 등에서 게송을 차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스승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수좌들은 스님을 찾아 법을 묻는 일이 많았다. 스님은 80이 넘어서도 수좌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용맹정진을 하기도 했다. 특히 화두가 들리지 않아 고민하는 수행자가 찾아올 때면 "쇠가 아무리 굳어도 열이 3000도가 되면 녹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인공에게 맹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때때로 후학들에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석가모니의 고행상을 보여주면서 정진을 재촉하기도 했다.

1982년 7월17일 시자 명정스님이 "어떤 것이 스님의 참 모습입니까"란 물음에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라는 유명한 임종게를 남겼다.

〈1892~1982, 통도사 극락암 조실〉

고 암 스 님

'깨끗하고 온화한 자비보살'이란 이미지를 불자들 가슴속에 심어준 스님은 젊은 시절 바랑 속에 발우 한벌, 가사장삼과 옷가지 세벌 그리고 몇권의 경전을 넣고 삼천리 방방곡곡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스님이 이처럼 운수여정에 충실한 것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 정진하기 위함이었으며, 제자들에게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유행(遊行)할 것을 가르쳤다.

스님은 특히 하심(下心)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수행했다. 어느 사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공양주소임을 자청하였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 여러 스님들께 바친 적이 많았다. 아만심을 경계하고 스스로 하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궂은 일을 자청할 정도로 겸손했다.

문하에 기라성 같은 제자를 두시고도 평생 손수 빨래를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1899~1988, 조계종 제 3·4·6대 종정〉

묵 담 스 님

11세에 순오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해 평생을 율사로서 수행한 스님은 "계율은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고 사부대중이 성위에 오르는 중요한 문"이라고 중요시했으며, 일생을 도제양성과 교화사업, 가람중수, 보시행단(布施行壇)으로 보냈다.

27세부터 전국의 사암을 주유하면서 법등을 밝혀 법사, 회주, 계사 등의 자격으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불사를 권장했다. 불상조성 25회, 예수재불사 17회, 천도불사 9회, 가사불사 11회, 대승보살계 62회를 행하는 동안 비구(니)계, 고사계,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무려 1만9718명에 달했다.

36세인 1932년 양주 망월사 선원에서 하안거 결제시에 '정전백수자화(庭前栢樹子話)'라는 화두를 참구하다가 뜰앞의 노송을 보고 확연히 깨달았다. 교학과 선을 닦는 동시에 전법포교와 권선불사로 일생을 매진한 스님은 1981년 1월3일 문도들을 불러놓고 "부처님의 계를 스승삼아 공부하되 스스로 등불을 밝혀 세상을 빛내라"고 당부한 후 게송을 읊으신 뒤 단좌입적(端坐入寂)했다.

〈1896~1981, 조계종 제 5·6·7세 종정 및 태고종 제 3·4세 종정〉

자 운 스 님

스님은 "아첨하지 말라, 사악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계율로 청정토를 삼아 보리심의 싹을 틔우는 인을 만들고, 예경하고 참회하며 지율지계로 정진하라"고 늘 강조했다.

1939년 4월15일부터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수행의 좌표를 얻기 위해 백일간 불수(不睡) 기도를 봉행하던 중 99일만에 문수보살로부터 계율 중흥을 위해 정진하라는 감읍을 받은 후 율장을 연구·강설하고 국·한문의 율문을 널리 홍포했다.

'계정일치(戒定一致)' 수행을 제창한 스님은 19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전계대화상에 추대된 이후 1981년 종단 단일계단이 형성될 때까지 약 30여년동안 전국 각 계단의 수계산림에서 비구(니) 3,186명등 수계제자 10만여명을 배출했다. 말년에는 일과로 '아미타불'을 10만번씩 염하면서 염불과 지계를 겸수했으며, 열반에 이르러 단정히 앉아 염불하면서 입적했다.

〈1911~1982, 조계종 전계대화상〉

탄 허 스 님

탄허스님은 후학들에게 자주 생전의 명예보다는 백년 천년 후에 살아 있어야 하고, 시주의 은혜가 무서우니 공연히 신세를 지지 말 것을 철저히 하라고 늘 강조했다.

1934년 오대산 상원사 한암스님과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에 대한 서신문답을 하다가 출가한 스님은 입산 후 18년간 오대산에서 두문불출 참선과 간경으로 일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진수를 터득하고 부처님의 근본종지를 확연히 깨쳐 한암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1953년 '탄허는 나의 아난이다'고 아끼던 한암스님의 유촉을 받들어 역경작업에 전념, 1972년부터 1983년까지 화엄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신화엄경합론〉 전 47권을 비롯한 수많은 저서와 역서를 남겼다.

〈1913~1983, 오대산 수도원장·중앙역경연수원 초대원장〉

성 철 스 님

1967년 한국불교 최초의 총림인 해인총림의 초대방장에 취임한 스님은 16년간의 생식, 10년 장좌불와(長坐不臥)와 법랍 일생동안의 산문불출(山門不出), 접견을 위한 3천배 정진 등 숱한 수행과 일화를 남기며 청빈 무소유의 일생을 살았다. 특히 언제나 '자신을 바로 보라'고 설했던 성철스님은 3천배를 통해 "일체중생과 남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선수행뿐 아니라 교학에 있어서도 스님은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30여년 동안의 설법을 모은 법어집 〈백일법문(百日法門)〉 11권을 비롯, 선림고경총서 37권을 간행했다.

성철스님은 평소 선원의 수행납자들에게 '잠을 많이 자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간식하지 말라', '마음닦는 사람에겐 책보는 것이 비상이다', '해제중에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5계를 강조했다.

〈1912~1993, 조계종 7대 종정·해인총림 초대방장〉

월 산 스 님

경허-만공-금오로 이어지는 선맥(禪脈)을 계승한 월산스님은 덕숭문중의 가풍을 안빈낙도(安貧樂道), 즉 '가난함을 즐기고 도에 즐거움을 붙이는 것'이라 하고, 자신의 가풍을 '하루 세 끼 밥 먹고 잠오면 잠자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역대 선지식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상심시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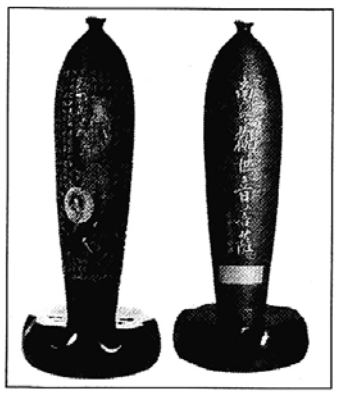
그러나 스님은 이처럼 참선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다소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경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삶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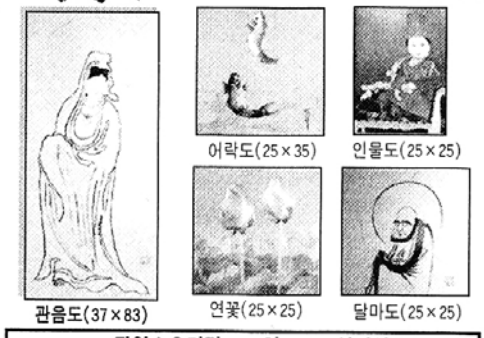
종단이 혼란과 위기에 처했던 정화나 개혁 당시와 같이 종단이 난국에 처했을 때는 현실에 적극 나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을 제시했는가 하면, 총무원장을 맡고난 후 한 두 달만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홀연히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무착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다.

〈1912~1997, 조계종 제6대 총무원장·원로회의 의장〉

삼각산 황룡사
거산 화엄의 달마도
■작가 : 거산 박성열 합장
산방 02)375-7077 / 화실: 372-7016
모자쓴 달마도 시험 합격 승진

▲모자쓴 달마도 34.5×35
▲상반신 달마도 35×68
▲전신 달마도 35×103

관세음보살 감로병

의장등록 제75586호
전체높이 : 790mm
감로병높이 : 695mm
받침높이 : 95mm
▶가격: ₩500,000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 중생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며 자비를 베풀어주는 절대적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자비의 결정체로서 모든 중생을 동등한 선상에서 아무 조건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그런 까닭에 어떠한 중생이라도 당신의 명호를 지성껏 외우면 기필코 구해 주시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거룩한 보살님입니다.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감로법우를 내려 중생의 고뇌의 불을 껴서 청량을 얻어 해탈케 하시니 그 감로의 법우가 반야심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로병의 모양에 관세음보살님이 남순동자에게 감로수를 쏟아주시는 모습을 새기고 아울러 반야심경을 새긴 것입니다.(양각)
선우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7
Tel : (02)338-1076,1033 FAX : 02)338-4714

손 양면자수 불교미술 탄생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새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기법

관음도(37×83)
어락도(25×35)
인물도(25×25)
연꽃(25×25)
달마도(25×25)
■작업소요기간 : 10일 ~ 100일이상
(수작업인 관계로 규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양면슈리 사용 받침대 포함 ※
※관음도·지장도·십수도등 주문제작 가능※
※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오랜시간 불심의 손끝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수놓아져 새겨진 놀라운 자수작품입니다.
▷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관음의 가피력이 불자님의 소원을 기필코 성취시켜 드릴 것입니다. 관음도
▷ 더러운 진흙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을 불교에서는 보리심·청정 무구한 불성을 상징합니다. 연꽃
▷ 영정, 인물자수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가보가 될 것입니다. 인물도
▷ 물고기 두마리는 부부금실이 좋다는 의미도 있으며,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락도
▷ 신비스러운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등 건강과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 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분께는 달마도를 함께 드립니다.
흔치 않은 불교미술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요.
불자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명 화 자 수
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6-6 살롬빌딩 3층
전화 : 02)3446-5090/ H.P : 011)327-5094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은빛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솜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여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픔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호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